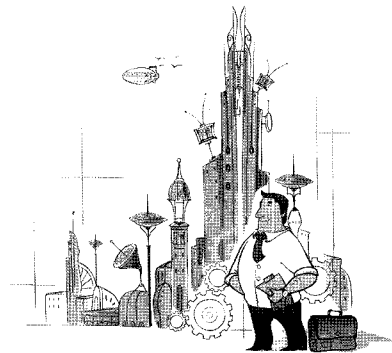


산업단지 클러스터 강화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클러스터 시스템에 개방성을 확대하고 경쟁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05년부터 산업단지내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자생력 강화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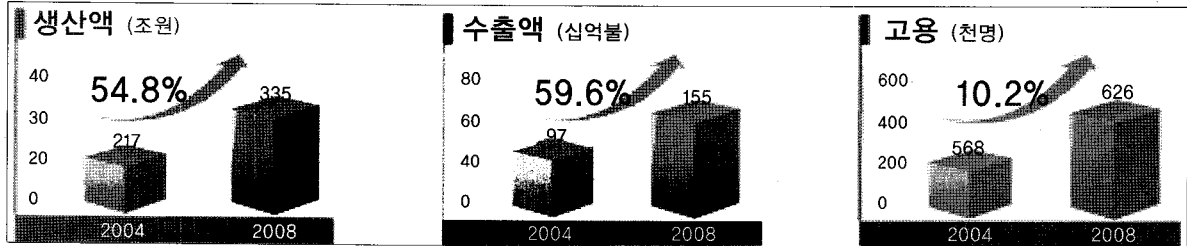
지난 5년간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이 구축됨으로써 산업단지내 생산·수출·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등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산학연 연계·협력 증대로 사업 참여기업의 최근 4년간('04~'08) 기업간 연계, R&D 투자액 등 혁신역량이 최대 약 150% 증가했다.

대상단지 전체 생산54.8%, 수출 59.6%, 고용 10.2%도 크게 증가('04 → '08)했다. 5년간 참여회원 약 2배, 회원간 네트워크 활동은 약 3배 증가('05 → '09)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클러스터 형성 추진으로 산업단지내 클러스터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위한 자생력 배양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사업 광역개편 방안('10.2월)” 과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3)”을 마련하였으며, 금회 두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클러스터사업 자생력 강화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자생력 강화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클러스터간 경쟁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생성·소멸의 활성화, ② 클러스터 개방성 확대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확충, ③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기업 주치의” 제도로 전문성 강화, ④ 민간 주도로의 단계적 운영 전환을 통한 자생력 강화 등이다.

클러스터 경쟁과 자율성 강화는 산학연협의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부는 퇴출시키고 일부는 분화(specific)시킴으로써 클러스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과제 선정을 현 개별단지 수준에서 광역단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광역 내 모든 미니클러스터를 경쟁 시키는 것이다.

개방성과 연계 확대는 사업 참여기업 확대와 국내외 유사 클러스터간 교류 및 연계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수도권(반월시화)-호남(군산)-대경(성서)-동남(울산)」 연계 등이다.

클러스터 전문성 강화는 대기업 퇴직인력을 “기업 주치의”로 활용하여 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생력 강화는 산학연협의체를 점차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운영비 자율 부담 등)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환경의 상호 연계를 통한 양방향 네트워크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광역권간 산학연협의체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도 도입된다.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 시스템 개편 방안”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주요 성장동력으로 '10년 4월부터 광역클러스터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식경제부와 클러스터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광역클러스터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권별 비전 및 전략을 공유코자 ‘권역별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20일부터 수도권(4.20), 동남권(4.21), 충청권(4.27), 강원권(4.29), 대경권(5.4), 호남권(5.7) 순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산·학·연 광역클러스터 참여주체들이 참석하여 광역클러스터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각각 대경권, 호남권 광역클러

구분	기 존(변경전)	향 후(변경후)
클러스터 사업참여	- 12개 클러스터 대상 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클러스터 회원기업 (미니클러스터 가입 업체)	- 전국 193개 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특화산업 모든업체 (미니클러스터 회원제 폐지)
클러스터 범위	- 산업단지내에서 클러스터 활동	- 클러스터 활동이 광역권으로 확대 -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 확대
클러스터 활동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 - 대면접촉 위주로 활동	- 선도·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 강화 - Mobile, Online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활동 전개
과제평가	- 산업단지별로 과제평가	-광역권으로 통합하여 평가
과제지원	- 기업 단독과제 위주로 지원	- 기업들간 공동과제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한도 : 2억원	- 과제당 지원한도 : 5억원
과제관리 시스템	- 오프라인(Off-Line) 과제관리 - 과제작성·평가·관리를 Off-Line에서 실시	- 온라인(On-Line) 과제관리 - 과제작성·평가·관리를 On-Line에서 실시
전문가 활용	- 지역대학 교수 위주로 활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기업 주치의"로 활용

스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역별 선포행사에는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광역클러스터 발전방안 토론회 △광역권 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현판 제막식 △산·학·연·관 교류회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광역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스타 클러스터와 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며, 또한 산업단지가 광역권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협력-연계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5년동안 추진한 성과로 중개기능과 집단학습능력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기존 개별산단 내의 성과를 광역권역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는 미흡했으며 금번 광역 클러스터 개편과 시스템 개편을 통해 훌륭한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역권별 클러스터 비전 】

△ 수도권-지식기반 부품소재 산업의 허브	△ 호남권-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 구축
△ 충청권-대한민국 New IT 허브	△ 강원권-동북아 의료기기산업 중심지 구축
△ 대경권-동북아 IT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 제주권-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의 거점 구축	